

# 축지법으로 세상 잇고, 인류의 염원 묻는다

##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앞서 한국관 전시작 '축지법...' 공개

### '모든 세계의 미래' 주제... 베니스의 수몰 이후를 가정한 영상물 국제전엔 한국작가 3명 초청... 병렬전시로 김환기 등 단색화전

다음달 9일 개막하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는 문경원·전준호 작가의 7채널 영상설치작품 '축지법과 비행술'이 선보인다. 비엔날레 국제전에는 한국 작가로는 6년 만에 김아영, 남화연, 임흥순 등 3명의 미디어 아티스트가 초청됐다. 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병행 전시로는 최근 미술시장에서 각광받는 '단색화'전이 열린다.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창설 120주년, 한국관 설치 20주년인 데다 한국 작가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져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일 서울 대학

로아르코미술관에서 한국관 전시작인 문경원·전준호의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을 언론에 공개했다. 10분30초 동안 7개 채널로 상영되는 영상은 종말적 재앙 이후 육지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부표처럼 떠돈다는 가정 아래 시작된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등장 인물이 겪는 이상한 경험과 의도된 만남을 통해 예술에 대한 작가들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는 항구도시 베니스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30개 국가관이 모여 있는 자르디니(공원)에서 한국관이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암시돼 있다. 실제 한국관과 똑같은 세

트를 경기 양주에 지어 촬영했으며 영화 배우 임수정이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한국관 커미셔너인 이숙경 영국테이트 미술관 책임큐레이터는 "올해 국제전 주제인 '모든 세계의 미래'를 염두에 두었을 때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적합한 작가는 문경원·전준호"라며 "이들이 '뉴스프롬노웨어'라는 공동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 미술이 미술을 넘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작품에 담겨 있다"고 했다.

전준호 작가는 "'축지법과 비행술'이란 제목에서 도교적 개념인 축지법은 작품이 전시되는 이탈리아와 작품이 촬영된 한국이 겹쳐진다는 뜻으로 현대미술의 동시대를 의미하며, 비행술이란 중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 예술의 목적과 비슷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각자 작업해오던 두 작가는 2009년 우연히 만나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뉴스프롬노웨어'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우리 발언이 이 시대를 역류하는 건 아닌가' 자성하면서 건축가, 디자이너, 과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기획해 현재 예술의 지향점과 사회 전반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번 작품 '축지법과 비행술' 역시 함께 개념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고 뇌과학자, 신화학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영화 촬영 및 후반작업을 진행

했다.

비엔날레 본전시로 불리는 국제전 참여 작가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아영 작가는 김희라 작곡가와 함께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쉼3'라는 설치·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인다. 남화연 작가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툴립포마니아를 바탕으로 제작한 '육망의 식물학' 영상작업을 전시한다. 앞서 남작가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시간의 기술'이란 제목의 첫 개인전을 열고, '코레앙 109'(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심경의 분류기호) '유령 난초' '동방박사의 경배' 등 6점의 영상작업을 선보인다. 임흥순 작가 역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지에서 촬영한 '위로공단'이란 다큐멘터리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관과 국제관 전시는 11월 22일까지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폐 공장을 개조한 전시관)에서 6개월여 계속된다.

한편, 베니스 남쪽의 옛 궁정인 팔로초 콘타리니 폴리낙에서는 비엔날레 본전시와 더불어 '단색화'전(5월 7일~8월 16일)이 열려 한국 단색화 운동의 대표 작가인 김환기, 정창섭,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등의 주요 작품 70여점이 선보인다.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며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가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단색화전'에 참여하는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작가와 이용우 큐레이터(왼쪽부터). 국제갤러리 제공